

이렇게 들었다

나눔과 베품 "지식 돌보는 마음으로 보시"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받다가 '거지'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왕따'로 찍혀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 겨울을 이겨낼 아무런 준비도 없는 노숙자들이 추위를 피해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소년소녀가장들과 독거노인들은 유난히도 춥다는 울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 태산이다.

해마다 한해가 저물어갈 때쯤이면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말을 듣게 된다. 어려웠던 한해인만큼 올해처럼 이런 말이 실감나게 들린 적도 없다. 불우한 이웃에 대해 늘상의 관심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다소나마 그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 또한 값진 일이다.

나눔과 베품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 설사 신에게 백천번 기도하고 모든 의도에 공양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으로 베풀 공덕의 1/16에도 미치지 못하리라.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얻은 재물로 거창하게 베풀다 해도 깨끗한 재물로 베풀는 작은 보시의 공덕에는 비교할 수 없느니라. <잡이함경>

■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할 때는 기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며 복전(福田)에 보시할 때는 기뻐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친우에게 보시할 때는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키야 한다. <우비새계경>

■ 불자여, 보살은 큰 시주(施主)가 되어 온갖 가진 것을 다 보시하되, 그 마음은 평등해 누우치거나 인색함이 없으며, 과보를 바라지 않으며, 명성을 구하지 않으며,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온갖 중생을 구호하고 온갖 중생을 이롭게 하기만을 위할 뿐이다. <화엄경>

■ 베품은 중생을 위한 복의 그릇이요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이니 누구라도 보시의 공덕

을 생각하거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내라. 베품은 널리 평등하게 골고루 하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아야만 베풀는 마음속에서 나를 만나 구제받는 인연을 맺으리라. <중일아함경>

■ 사람을 가리지 않고 평등한 마음으로 골고루 보시하라. 그러한 공덕은 내게 보시한 공덕과 다름이 없느니라. <분별보시경>

■ 음식을 보시하던 큰 힘을 얻고 의복을 보시하던 좋은 얼굴을 얻으며 수레를 보시하면 집력을 얻고 등불을 보시하면 밝은 눈 얻고 입에서 손님을 기다리면 그것을 일러 일체 보시라 하고 법으로써 중생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곧 단 이슬 보시라 하느니라. <잡이함 시하득대령경>

■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게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게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

한 모양을 보는 것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같이 한다. <열반경>

■ 어리석은 사람은 남에게 보시를 하려다 말고 재산이 많이 모이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보시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재산은 많이 모이기도 전에 수재, 화재 혹은 관청이나 도둑의 약탈로 인해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 <백유경>

■ 은혜를 아는 깨끗한 믿음으로 남에게 베풀면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가 있는 곳 어디라도 그림자처럼 복된 길음을 따르리니 인색한 마음 버리고 조건없는 깨끗한 베품을 실천하라.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기쁨은 항상 거기 있느니라. <잡이함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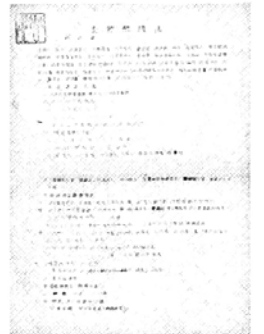
■ 은혜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덜어 널리 베풀어도 환산간도 미련을 남겨 후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벗을 만나 피안에 이르러 즐거우리라. <중일아함경>

김민수교수의 백양사일기(45년11~12월)

스님들 강연

- 1945년 12월7일(금)

오늘 오전에는 한글 가르쓰기 연습을 했다. 각기 이름을 칠판에 나와 쓰게 하고 교정을 해주었다. 오후에는 교수법(教授法)을 강습시켰다. 이번 강습을 마치고 난 후 다른 곳에서 한글을 강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오전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이만홍 스님을 연사로 이야기를 들었다. 해방의 역작으로 혼란에 빠진 현실을 뛰어넘자는, 우리 민족의 진로에 대한 말이었다. 저녁에는 이산스님(서용)이 이야기를 했다. 불교는 유심(唯心)도 아니고 유물(唯物)도 아니고, 이것을 초월한 무심(無心)이라는 요지였다.



◇ 조순어학회, 「초등국어교본 한글 교재 指針」

수강생 사은헌

- 1945년 12월9일(일)

오늘은 강습회를 끝마치는 날이다. 일요일이지만 강습에 대한 감상을 짓게 했다. 오후에는 감상문을 각기 낭독하여 발표케 하였다. 또 한자(漢字) 폐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강습회를 마쳤다.

저녁 무렵,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 큰 방으로 갔다. 방 가운데 큰 상이 차려져 있고 강습생들이 모여 있었다. 강습생들이 회비를 모아 '사은회(謝恩會)'를 마련했다고 한다. 두 주일간 합숙을 하면서 밤낮 어울리느라 정이 들었기 때문일까. 모두들 얼굴에 아쉬움이 가득해 보였다. 강습생 김흥기의 멋있는 춤과 미처 몰랐던 이만홍 스님의 소리가 흥겨웠다. 나도 어울려 '독립행진곡'을 불렀다.

강습회 졸업식

- 1945년 12월10일(월)

아침에 항적전(香積殿)에 강습생을 모아놓고 졸업식 준비를 하고서, 10시30분쯤 대웅전 법당에서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졸업식은 '마침중서' 수여, 송만암 스님의 훈사(訓辭), 내빈 축사로 끝났다. 저녁에 이만홍 스님과 몇몇 스님이 내 방으로 찾아왔다. 한 스님이 약소해서 부끄럽다며 봉투를 내놓았다. 사례비 1천원과 여비 2백원이 들어있었다. 뜻밖의 일이라 계속 사양을 하다가 부득이 받게 되었다.

백양사에서 마지막 날

- 1945년 12월11일(화)

새벽 일찍 잠이 깨었다. 다시 잠이 들지 않아 불을 켜고 일기를 쓰고 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집으로 떠난다. 한글을 강습하기 위해 왔지만 한 달 동안 이곳에 머물며 배운 것이 더 많다. 불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스님들과 강습생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한글보급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끝>

[후기] 해방직후, 긴급한 과제 중 하나는 일제하에서 실종되었던 민족성의 복원이었다. 그 일환으로 국어 회복을 위해 전개했던 국어강습회에 관한 보고서 기록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일기가 당시의 모습을 알리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당시의 기록을 들추어 정리(正書)하면서 뜻조차 짐작하지 못할 어휘가 많아 곤란을 겪었다. 불과 반세기인데 시대적 격차인지, 아니면 퇴고하지 않은 일기의 속성인지 모르겠다.

'귀의이보' 하겠다는데...

타종교인 보기 민망스럽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歸依)하는 권유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불자들의 생각과 같이 "부처님 보고 절에 가지" 하고 마음을 달래지만, 분노심은 쉽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불자들의 심정도 저와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은 내분이 처음도 아니고 연중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으니 우리 불자들이 어찌 스님들을 존경할 수 있으며, 우리 중단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분을 일으키는 승려들이 소수라면 그래도 다행일텐데 저는 소수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계종의 최고 어른인 총정와 총무원장 및 원로회의 의장 등의 스님들이 이 싸움의 핵심인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찌 중단 전체가 썩었다고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설사 참선에 몰두하고 계시는 다수의 스님들은 깨끗하지 않으나 반말한 스님들이 계시지 모르나, 참선하거나 방관만 하고 계시는 스님들도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참선이며, 누구를 위한 참선입니까?

제 주위의 불자들이 앞으로는 '귀의삼보는 못하겠고, 스님에게 귀의하는 것을 댕 '귀의이보'만 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불자들은 사찰을 찾지 않을 것이며 '무사찰주의(無寺刹主義)'가 번창하지 않겠습니까?

스님 여러분, 제발 앞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하지 마시고, 세계인들의 조소거리가 되지 마시며, 불교신도를 부끄럽게 만들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병호(경북대의대 교수, 의·치대 불교법우회장)>

조계종시대

독자의 소리

분규 장기화 우려 원로스님들 중재 절실

한 일간신문은 조계종사태를 보도하며, 총무원청사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 장기화 되면 교구분사를 비롯해 주요 사찰의 싸움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기사를 보면 10년 전 봉은사, 그보다 오래된 신흥사 사건이 떠올랐다. 사람의 목숨까지 잃었던 끔찍한 일이었다.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조계종의 모든 스님들이 다름의 당사자가 아닐텐데, 다른 스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지 궁금하다. 특히 원로스님들이 모여야 한다. 한자리에 모여 몇 날이 걸리든 조계종사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상처가 클수록 그 치유도 힘이 들고 후유증도 크다. 유승근(인천시 계양동)

스님들 대하기 불편 절에 가고싶지 않다

10여년 전 직장 선배님들 피아노 위에 평구는 부처님상을 얻어 다 집안에 봉안하여 귀의처로 삼고 있다. 새벽 4시에 카세트에서 도량석이 흘러나오면 부처님전에 촛불을 밝히고 향을 올리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아이들을 깨워 아침공부를 시작하는 시각

도 도량석으로 시작한다. 나는 우리 집 부처님으로 만족한다. 모든 스님들이 조계종사태를 일으킨 사람들과 같이 앉았지만, 한동안은 스님들 대하기가 편치 않을 것 같다. 대연(daeun1@cheju.cheju.ac.kr)

재가불자들이 오히려 스님걱정 해야할 처지

지금 조계종을 보면 스님들의 자질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 출가해서 사회의 운영원리 같은 것을 모른다. 승보라는 때만들어짐에 기고만장해진다.

물론 스님들 가운데는 초발심의 정진을 굳게 붙잡고 선방 문고리를 놓지 않는 스님들도 많이 계신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드러나지 않는다. 두문불출 자신의 말을 바 역할만 묵묵히 수행해 나가기 때문이다. 스님들을 평가해서 자질이 떨어지면 내쫓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스님들이 하지 않으면 재가불자들이 해야 한다. 이미 스님들은 재가불자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했으며, 오히려 재가불자가 스님들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스님들은 산중으로 돌아가야 한다. 깨달음을 사회화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깨달음을 위한 첫 발이라도 내딛어야 한다. 유마거

사계서는 삭발염의하는 것이 출가가 아니며, 산중에 있는 것이 출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조민선 <webmaster@budnews.net>

6일 양측 규탄대회 장애인동원에 실망

조계종사태와 관련, 6일 오후2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범불교대회가 있었다. 같은 시각 조계사에서는 제2정화불사 성취기원 및 조계사 대웅전 방화 규탄대회가 열렸다. 양측의 집회를 지켜보면 서로 이해가 안가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방화 규탄대회가 개최된 조계사 각 입구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눈에 띄었다. 범불교대회 참석자들이 실마 끈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밀치고 조계사로 들어오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는 듯하다. 장애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달래주어야 할 스님들이 그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면 비겁한 행동이다.

이와 함께 범불교대회에서 뿌려진 무슨 계보도 같은 유인물도 실망스럽다.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것은 아무리 싸움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 서로 할말이 시작하면 끝이 없다. 머지 않아 조계종사태는 마무리되리라 본다. 그때는

모두 함께 부처님 일을 할 도반이다. 제거해야 할 적처럼 몰아부치는 식의 양상을 그만 보여주길 바란다. 김선정(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추한싸움 보도 줄이고 보살행 지면 늘려야

천주교는 신자배우운동을 벌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종교인구의 18%가 천주교신자라고 한다. 우리나라 천주교신자 비율은 9%. 세계평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성공회에서는 자선남비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세상을 맑히는 종소리도 들린다. 그런데 불교는 무엇하고 있나. 10년 전, 20년 전 했던 싸움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싸움은 스님들 가운데 일부가 하고 있지만, 그 파장은 불교 전체에 미친다. 아니 외국인론까지 보도하고 있으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언론에 당부하고 싶다. 대다수 스님들과 불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추한 싸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도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용맹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이 많다. 이러한 중생들의 손과 발이 되고, 빛이 되는 보살들이 많다. 이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데 더욱 많은 지면이 쓰여져야 한다. 김미숙(강원도 영월)

초의선사 성상

초의문화재단에서는 무안군에서 주최하는 현창사업에서 복원되는 생가에 모실

복사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한국의 다성(多聖)인 초의선사의 성상을 목표로 조성하여 선사께서 출생하신 전라남도 무안군 생가터에 봉안하고자 합니다. 이 뜻깊은 불사에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기원합니다. 점안식은 내년(99년)음력 4월 5일 선사께서 출생하신 날에 봉안하고자 합니다. 불사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선사께서 생전에 애용하시던 초의다기와 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舟衣禪院長 釋龍雲 合筆

주최 : 초의문화재단
전화 : 02-732-2317
팩스 : 02-732-2319
 인터넷 : http://www.teancha.co.kr
 국민은행 : 006-01-0452-791
 농협 : 053-01-193314
 우체국 : 010579-0026125
 예금주 : 전종석

조성 불사 동참 안내

초의선사께서 생전에 애용하시던 초의다기와 문수차·보현차를

동참금 200,000 이상 동참금 30,000 이상

특별한 제다공법으로 완성시킨 [100g x 2봉(5~6만원 상당)]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초의선사 생가복원을 위한 현창사업 소개

- 초의선사 폐서는**
대각등계보제존자초의대선사(大覺等階普濟尊者舟衣大禪師)의 사상과 업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차(茶)에 관한 것, 선(禪)에 관한 것, 시(詩)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초의스님을 가리켜 시, 서화(詩書畫) 삼절(三絶)이라고 하니 이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초의선사를 말할 수 없으리라(석용운 스님의 '초의선사의 생애와 사상' 중에서...)
- 5월의 문화인물 초의선사(지난해 1997년)**
선사의 탄신 211주년인 지난해 5월, 문화인물로 선정 되었습니다.
- 선사께서 수행정진 하시던 일지암**
선사께서 옛 인연의 터에 몇 칸 집을 짓고, 못을 파서 달이 비치게 하였던 일지암, 그 후 소실되어 그 터만 남아있는 것을 용운스님께서 1975년부터 복원사업에 진력 하셨습니다.
- 초의선사 생가복원을 위한 현창사업**
초의선사께서 탄생하신 전라남도 무안군(삼향면)에서는 초의 의운 선사에 대한 현창사업을 실시하여 그 정신을 기리고자, '97.4.19(토) 72명으로 현창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생가 복원(무안군 삼향면 왕산리에 7,143)유해비 건립(생애, 업적등 기록), 추모각 건립, 20명(초상화, 유품등 전시) 등의 현창사업을 실시 합니다.
- 선사의 법손인 용운스님께서는**
초의선사 현창사업에 참여하여 생가 복원시 초의선사 성상을 조성하여 봉안 하고자 합니다.

머지않은 시대에 茶山, 秋史, 海屋, 申禪 등 많은 명사들과 교류하며 그들에게 禪사상을 가르치고 한국의 차문화 증진을 도모했던 정신을 계승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정신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하고자 합니다.